

The Possibility and Challenges of the Establishment of K-Marine Humanities

Eom, Tae-ung

Associate professor, Korea University, Korea

ted0825@korea.ac.kr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ention the necessity of setting up marine humanities, review research results such as marine literature, marine history, and marine folk studies, and discuss the possibility and significance of marine humanities as an alternative academic research methodology.

Methods The possibility and significance of marine humanities will be reviewed focusing on literature, history, and folklore, which are highly related to marine humanities, to confirm their goals. I would like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f humanities looking at the ocean through a review of humanities research related to the ocean.

Conclusions This article discusses the possibility and significance of marine humanities as an alternative academic research methodology. Oceanography and humanities are concepts that cannot be easily joined from a principled level. Research related to the ocean mainly played its role in the natural sciences, a relative area of the humanities. On the other hand, because humanities research has a strong tendency to identify human 靜 and universal values, the nature of marine culture, which has a strong dynamic and relative orientation, is difficult to be illuminated with a humanistic perspe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research related to the ocean that has been conducted in the existing humanities field. Through this, marine humanities can create a new cultural area that overcomes the concept of territorial borders, becoming an academic methodology to overcome conflicts and hierarchies between regions and countries, expand cultural studies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re-recognize the culture of marine culture revelers who are cultural minorities. In other words, marine humanities can be extended not only to interest in marine-related research topics that have not been noted so far, but also to alternative methodologies that overcome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modern humanities centered on the continent.

Keywords Oceanic Humanities, Humanities Development, Alternative Academic Research Methodology, Potential, Creative Space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3.10.312.007

Received: Sep. 20. 2023 ; Reviewed: Oct. 10. 2023 ; Accepted: Oct. 15. 2023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K-해양 인문학의 성립 가능성과 과제*

엄태웅

목 차

1. 서론
 2. 원론적 개념 고찰
 3. 기존 연구 경향 검토
 4. 해양인문학의 과제와 의의
 5. 결론
-

1. 서론

이 글은 ‘해양을 주된 주제, 혹은 소재로 한 인문학적 연구’¹에 대해서 ‘해양인문학’이라는 잠정적 명칭을 사용하여 해양인문학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해양인문학의 하위 영역에 해당되는 해양문학-해양사학-해양민속학 등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뒤에,² 해양인문학이

* 이 글은 학회의 요청으로 2008년에 발표한 ‘해양인문학의 가능성과 과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이러한 언급은 지금까지 ‘해양을 주된 주제 혹은 소재로 한 대상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전혀 없거나 부족했다는 등의 계량적·질적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다만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되었던 연구사적 흐름을 비판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이들 연구의 상보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학문적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전에 요구되는 불가피한 개념 규정을 위해 설정한 유보적 정의라 할 수 있다.

2 당연하게도 본 논문에서 이와 같은 방대한 분야의 모든 연구 성과를 일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구사 검토이되 개별 연구에 천착한 검토보다는 연구 경향에 주목한 검토를 지향한다. 본 논문은 인문학 몇몇 분야-문학, 사학, 민속학-가 어떻게 ‘해양’이라는 학문 영역과 함께 연구되고 있는지 그 대강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경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누락된 관련 연구 성과가 연구사적으로 그 의미가 폄하되거나 평가절하 될 수는 없다는 점은 굳이 첨언을 요하지 않는다.

지니고 있는 대안적 학문연구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과 의의에 대하여 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인간에게 바다는 생명의 공간이며 또한 생명의 탄생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바다는 인류의 출현 이전부터 생명의 원천(源泉)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인간이 삶의 자양분을 획득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인 육지(陸地)만 그 의미를 인정받은 측면이 강하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거주하고 정착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주목했을 뿐, ‘그 정착을 가능하게 한 공간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정착 공간’인 바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바다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들로 재창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공간이다. 바다는 단순히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삶의 방식, 곧 문화가 엷섞이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반을 마련해준다. 주지하듯 유사 이래 인류의 문화적 소통의 적지 않은 부분이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락국 김수로왕의 비(妃)인 허황옥(虛黃玉) 이야기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녀는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다. 부왕(父王)과 모후(母后)가 꿈에서 알현한 상제(上帝)의 말씀에 따라 김수로와 혼인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락국에 도착한다.³ 육로(陸路)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물리적 거리를 바닷길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인류는 바다를 통한 만남에서 서로의 이질적 성격 때문에 양자의 정체성이 충격을 받고 배타적 방벽을 쌓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문화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습득하는 공간성과 역사성에 대한 끊임없는 재인식의 과정을 통해 ‘시공간과 인간의 삶의 관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고, 이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양문화가 갖고 있는 실제 인류 역사에서의 의의는, 인류가 물리적 공간성 즉 육지의 문화에 방점을 찍고, 영토적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문화와 정체성을 불변하는 것으로 여기는 과정에서, 과소평가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특정 공동체의 내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타 공동체와의 소통과 교류를 배제한 상태에서 고민되는 것이라면, 이는 문화, 정체성이 갖고 있는 건강한 운동성을 소거한 채,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화석화된 기억만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정체성 전체

3 『三國遺事』, 「駕洛國記」. “妾是阿踰陀國公主也. 姓許名黃玉. 年二八矣. 在本國時. 今年五月中. 父王與皇后顧妾而語曰. “爺孃一昨夢中. 同見皇天上帝. 謂曰. ‘駕洛國元君首露者. 天所降而俾御大寶. 乃神乃聖. 惟其人乎. 且以新莅家邦. 未定匹偶. 卿等湏遣公主而配之.’ 言訖升天. 形開之後. 上帝之言. 其猶在耳. 備於此而忽辭親向彼乎. 往矣. 妾也浮海遐尋於蒸棗. 移天簾赴於蟠挑. 螭首敢叨. 龍顏是近.”

를 설명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결국 폐쇄적인 자기 질서만을 유일한 가치로 여길 여지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영토적 테두리 안의 내적 정체성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은 인문학의 기본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삶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인문학의 근본적 목표는 주로 인간이 육지에 뿌리를 두고 문화적 삶을 영위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로 인문학의 주된 관심은 인간이 ‘육지에서 행한’ 문화적 활동에 맞춰져 있다. 혹여 바다 혹은 해양이 소재가 되더라도, 그곳은 육지로부터 벗어난 불안한 공간 혹은 육지로 다시 도달해야 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렇듯 바다가 육지의 부수적 공간이라는 인식 외에도, 또 한편에서는 바다 혹은 해양이 갈등과 투쟁의 공간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가령 바다에서 일어난 국가 간의 다툼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 가운데에서 영웅적 전과를 올린 인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방식이 그 예다. 이렇듯 바다에서 일어난 세력 간 다툼에 주목한 것은 바다에서의 전쟁이 ‘육지 중심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로 서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바다에 대한 이러한 접근 또한 궁극적으로는 ‘육지 중심의 시각’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양인문학이라는 주제 설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할 것이다. 해양인문학은 이와 같이 각각의 영토적 테두리로 제한된 인문학의 연구범위를 새롭게 재편성하여, 인류 문화 연구의 다층적 권역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을 달리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 원론적 개념 고찰

전술했듯이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해양인문학’이라는 용어는 ‘해양을 주된 주제 혹은 소재로 한 대상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들을 통칭하는 잠정적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실 인문학이라는 넓은 범주에는 기본적으로 ‘해양을 주된 주제 혹은 소재로 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해양과 관련된 연구 대상들도 인간의 삶과 문화 전반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굳이 ‘인문학’이라는 개념 앞에 ‘해양’이라는 개념을 덧붙여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실로 다양한 층위의 규명이 가능하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그 원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문학이라는 개념의 기원과 형성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인문학(human science)은 원래 고대 서양에서 3학으로 알려진 문법, 수사학, 논리학을 통칭하는 넓은 학제적 개념으로서 4학으로 불리는 산술, 음악, 기하, 천문학을 통칭하는 특정한 계열의 학문 총칭인 자연 과학(natural science)과 나란히 엘리트 교육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두 범주에 속하는 학문적 분야에 대한 소양이 로마제국에서 당당한 인간, 즉 노예가 아닌 자유 시민, 특히 엘리트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 조건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인문학 즉 문법, 수사학, 논리학을 통칭하여 그 라틴어적 어원에 따라 ‘Humanities’라고 쓰게 된 역사적 사실은 인문학의 대상이 인간 자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다. 인문학은 인간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지적 측면과 표현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인간적이 될 목적으로 고안된 학문이다. 인문학을 자연과학과 구분하여 ‘liberal arts’라고 이름 지어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정말 자유로운(libre, free) 로마시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이 자연과학적 소양보다 선행되고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깔려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 사회의 정치적 맥락을 떠나서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liberty, freedom)라는 신념과 떼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⁴

인용문은 인문학이 자연과학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지적 측면과 표현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인간적이 될 목적으로 고안된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인문학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서술을 통해, ‘인문학’이라는 개념 앞에 왜 ‘해양’이라는 개념을 덧붙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대비적으로 설정해놓은 것을 통해서 해양에 대한 관심은 인문학적 접근보다는 자연과학적 접근에서 보다 많이 진행되었으며, 인문학의 목표를 통해서 그것이 대체로 주된 정착지인 육지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원론적 차원에서 인문학 개념의 형성과 전개를 살펴볼 때, 해양과 인문학적 성찰

4 박이문 (2004). 사유의 열쇠. 서울: 산치럼, 198-199.

은 결합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자연과학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해양은 자연적 법칙과 질서가 존재하는 공간으로만 인식된 측면이 강한 것이다. 또한 인문학 연구는 주로 인간의 정적(靜的)·보편적 가치를 규명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동적(動的)·상대적 지향이 강한 해양문화의 성격은 인문학적 시야로 조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해양을 무대로 하는 인간의 삶에 주목하는 연구가 대두되기 전까지, 해양은 인문학 연구의 특정 모티프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양과 관련한 인문학적 연구의 경향이 실제로 어떠한지 크게 문학·사학·민속학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의의와 나아갈 바를 모색하도록 하겠다.

3. 연구 경향 검토

해양인문학의 나아갈 바를 서술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해양 관련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문학의 하위 영역에는 다양한 분과 학문들이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이 중 해양인문학과 비교적 연관성이 높은 문학, 사학, 민속학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해양 관련 인문학 연구의 방대한 성과를 일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구사 검토이되 개별 연구에 천착한 검토보다는 연구 흐름에 주목한 검토를 지향한다. 이 장의 제목이 ‘연구 경향 검토’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연구 경향 검토에 그치는 것은 관련 연구 성과를 총망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물리적인 한계로부터도 기인하는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본 논문이 개별 논문 각각의 잘잘못 혹은 성과의 문제를 떠나서 해양을 바라보는 인문학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짙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 누락된 연구 성과가 연구사적으로 그 의미가 폄하되거나 평가절하 될 수는 없다는 점은 굳이 첨언을 요하지 않는다.

3.1. 문학 분야

그 이전에도 해양과 관련한 문학 작품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양문학’이라고 일컬을만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문학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그 중에도 간간히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었다.⁵ 그러나 본고가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제출된 연구 성과들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하겠다.

간단히 언급하면, 지금까지 해양문학과 관련한 연구는 여전히 ‘해양’보다는 ‘문학’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있다. 결국 해양문학이라는 범주가 기존에 이미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해양학’과 ‘문학’의 접점 및 생산적인 답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연구가 갖고 있었던 편향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다.

해양과 관련한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종전에도 꾸준히 존재했다. 이는 당연하게도 주로 해양이 주무대가 되거나, 주제적·소재적으로 해양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가령 고전문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해가」,⁶ 『표해록』류,⁷ 「최척전」,⁸ 「김영철전」,⁹ 「토끼전」,¹⁰ 등에 대한 연구에서 해양 혹은 바다라는 공간적 특성 혹은 바다를 매개로 한 소통 및 교류와 연관 지은 논의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들 논의는 주로 고전문학이라는 기존 학제적 범주 내의 연구사적 흐름 속에서 해석되었다.

만약 해양문학이라는 관점이 대두된다면 이들에 대한 해석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를

-
- 5 관련 연구는 아래 작품별로 소개된 연구 성과 참조.
 - 6 주요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진섭 (1981). 이방익(李邦翼)의 표해가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20; 최강현 (1982). 표해가의 지은이를 살핌. 어문논집, 23; 성무경 (1992). 탐라거인(耽羅居人) 이방익(李邦翼)의 표해가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12.
 - 7 주요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치부 (1991). 김비의(金非衣) 일행의 표해록 고찰. 겨레어문학, 15-16; 최래옥 (1993). 표해록 연구. 비교민속학, 10; 윤치부 (1996). 장한철의 표해록과 한문단편의 관련양상. 고소설연구, 2; 김동규 (2000). 우리 고전문헌에 나타난 해양체험의 사실성과 현대적 의미 ②: 조선기 최보의 금남표해록과 장한철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해양한국, 4; 이경엽 (2002). 고전문학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어부가, 표해록, 어로요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20; 이경엽 (2002). 어부가, 표해록, 어로요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한국언어문학, 50. 이 중에서 이경엽의 논의는 이 글에서 지향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 8 주요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환국 (1999). 16-7세기 동아시아 전란과 애정전기(愛情傳奇). 민족문학사연구, 15; 양승민 (2000). 최척전의 창작 동인과 소통과정. 고소설연구, 9; 신태수 (2007). 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 한민족어문학, 51. 해양, 바다, 동아시아와 〈최척전〉을 관련지은 논의는 비교적 본 논문이 지향하는 해양문학의 관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 9 권혁래 (2008). 김영철전과 해로사행의 수용양상. 우리어문연구, 31.
 - 10 주요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환 (1967). 토끼전 근원설화 연구: 인도설화의 한국적 전개. 아세아연구, 10; 최광석 (2001). 토끼전의 공간대립의 양상과 의미. 어문학, 73.

위해선 해양문학이 어떠한 것인가 그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양문학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해양문학의 개념 논란과 관련해서는 최영호¹¹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최영호는 고전문학 및 현대문학을 망라하여 해양문학의 개념 정립을 시도한 연구자들을 소개하고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다. 논자는 논문에서 최강현,¹² 윤치부,¹³ 이용옥,¹⁴ 조규익¹⁵(이상 고전문학 연구자)과 최영호,¹⁶ 구모룡,¹⁷ 현길언,¹⁸ 황을문¹⁹(이상 현대문학 및 외국문학 연구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가 갖고 있는 상대적 차이점 및 공통점을 상세히 다루는 것은 본 논문의 주된 방향과 일치하지 않기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그 논란의 핵심을 거칠게나마 정리해본다면, 그것은 해양문학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준을 완화하여 그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말로 한다면, 결국 ‘해양’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삶과 문화가 형성되는 또 다른 인식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해양인문학 형성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입장을 개선할 수 있다. 인문학이 인간의 삶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려는 학문이며 따라서 그 하위 영역에 존재하는 분과학문들이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인식으로 접근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인간의 다양한 삶이 끊이지 않고 존재했던 해양이라는 공간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삶의 또 다른 방식이며 토대이다.²⁰ 따라서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해양이라는 공간을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와 대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육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흔히 육지에서 형성되는 삶과 문화는 사회라는 이름으로 규정되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작품 해석의 근본적인 토대에 자리 잡는다.

11 최영호 (2005). 한국 해양문학 연구의 현재성. 현대소설연구, 28.

12 조규익, 최영호 편 (1994). 해양문학을 찾아서. 서울: 집문당.

13 윤치부 (1992). 한국해양문학연구: 표해류 작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14 조규익, 최영호 편, 위의 책.

15 조규익, 최영호 편, 위의 책.

16 최영호, 앞의 논문. ; 최영호, 앞의 책.

17 구모룡 (1996). 해양문학론서설. 해양문화연구, 1.

18 현길언 (1994). 섬의 주변성과 소설의 과제. 동서문학, 25(4).

19 황을문 (2004). 해양문학 창작을 위한 중층적 접근. 해양과 문학, 2.

20 이에 대해서는 최영호가 이미 잘 지적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 보아 바다로 인해 각 존재들의 동질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진실하게 하는지, 그 차별성과 특수성을 넘어 차이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문학이란 관점에서 해양문학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영호, 앞의 논문.

시대 및 지역에 따라 사회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지만, 특정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육지 중심의 사회가 언제나 인식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이라는 공간은 원래부터 특수한 공간이라기보다 육지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특수한 공간으로 ‘인식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해양은 육지와 대등한 관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공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가령 해양 혹은 바다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 이외에도, 상상 속에서의 해양 공간이나 다양한 이동의 공간들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작품들이 실재하는 해양 공간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상 속의 혹은 이미지화된 공간 설정을 통해 당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해양과 바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작품의 전반을 해양이라는 주제소재가 관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모습들 속에서 오히려 해양바다와 인문학이 교차하는 지점을 더욱 의미 있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²¹

더욱이 해양이라는 새로운 인식 기반을 설정할 경우, 지금까지 국경 및 영토 중심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해석들을, 해양을 통해 형성된 문화 권역을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근대적 분과학문 체제가 지닐 수 있는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 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3.2. 사학 분야

사학에서 해양 혹은 바다와 관련한 연구 주제가 학계의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혀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해양이라는 소재가 교류사, 민간 생활사, 전쟁사 등 역사학의 다양한 하위 갈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과 관련한 연구 성과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인문학의 관점에서, 해양과 관련한 사학 연구의 경향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살펴볼 경우 재고의 여지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해양과 관련된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대체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연구 주제들은 해양의 다양한 역사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기여했다기보다는, 육지 중심의 영토적 공동체들의

21 이러한 점에서 문화론적 관점을 통해 부산 해양문학을 살피는 것과 같은 방식의 논의는 의의가 있다 하겠다. 구모룡, 김정하 (2004). 부산지역 해양문학의 문화론. 한국문학논총, 37.

내적 단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양사 연구가 육지 중심의 영토적 공동체를 강화하는 논리로 기능한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 가도록 하겠다.

해양과 관련한 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수의 논문들이 장보고와 이순신처럼, 한국사에 있어서 바다해양과 관련해 주목받은 인물들을 그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²² 사학계의 연구 성과 중에서 이들 인물에 대한 연구를 따로 떼어내야 할 정도로 그 수량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경향이 지속된다면, 자칫 해양인문학과 관련한 주제와 소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역사학은 과거 거대 담론 중심의 학문 질서가 점차 미시사적인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시에 역사에 있어 중심적 인물에 대해서 긍정의 가치평가를 내리던 경향에서, 작지만 결코 당대의 역사적 맥락과 무관할 수 없는 주변적 인물들에 대해 주목하는 경향으로 이동하고 있기도 하다.

해양사학도 이와 비슷한 지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몇몇 소재에 머물러 있었던 주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야가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 연구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이전 연구의 방향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는 ‘해양’이라는 주제가 ‘육지’ 중심의 기존 연구 경향을 대체 혹은 보완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인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입체적인 해양사가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과연 어떠한 목적 하에서

22 근현대사에서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서 노골적으로 이용된 이순신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역사적 규명이 필요했던 장보고에 대한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장보고 관련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장보고와 관련한 논문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기서는 그 중 소논문 일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상기 (1934). 고대의 무역형태와 나말의 해상발전에 취하여(1): 청해진 대사 장보고를 주로 하여. 진단학보, 1; 김상기 (1935). 고대의 무역형태와 나말의 해상발전에 취하여(2): 청해진 대사 장보고를 주로 하여. 진단학보, 2; 노덕호 (1983). 나말 신라인의 해상무역에 관한 연구: 장보고를 중심으로. 사총, 27; 김문경 (1995). 당일에 비친 장보고. 동양사학연구, 50; 이병노 (1996). 고대일본열도의 신라상인에 대한 고찰: 장보고 사후를 중심으로. 일본학, 15; 김성배 (1998). 완도군 체도(體島) 조사보고: 장보고와 장도 청해진(淸海鎭) 유적. 도서문화, 16; 최근식 (1999). 도리기, 등주해행도의 검토와 장보고 교관선의 향로. 사총, 49; 강상택 (2000). 장보고의 청해진 진출에 관한 고찰. 부산사학, 38; 윤명철 (2001). 장보고의 해양활동과 국제관계: 동아시아중해론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16(1); 문안식 (2003).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와 해상왕국 건설. 동국사학, 39; 김천식 (2004). 장보고의 해상활동의 범위와 역사적 의의. 해운물류연구, 41.

이루어지는가이다. 다시 말해 왜 장보고나 이순신과 같은 영웅적 인물에 주목하는지 그 목적을 고찰해야만, 해양과 관련이 있는 이들 인물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경향이 과연 해양인문학적 지향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상반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큰 틀에서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은 대체로 해양인문학적 지향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보고와 이순신의 해상에서의 영웅적 활약상이 결국 어떠한 의의로 수렴되는가를 상기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결국 이들의 역사적 의의는 육지 중심의 영토적 공동체의 역사를 긍정하는 논리에 기여한다. 장보고는 신라, 이순신은 조선이라는 국가 혹은 국민의 강고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이때 해양은 그러한 논리를 가능케 하는 수단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면이 강하다. 즉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을 서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해양은 궁극적으로 육지 중심적 시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협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비록 해양과 관련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해양인문학적 연구라고 보기엔 어렵다.

결국 해양의 교류 자체가 주제가 되어, 영토 및 국경을 기준으로 한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문화 권역 형성을 통한 새로운 문화적 공동체의 지형도를 그리는 방향으로 해양인문학 연구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영토 및 국경을 기준으로 한 연구와 결합하여 해양인문학적 연구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해석의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3.3. 민속학 분야

민속학은 다른 여타 학문보다도 더욱 해양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학문이다. 주지하듯 민속학의 기존 연구에서 이미 해안 지역의 연구들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위상이 결코 작지 않다. 이에 그간의 연구 성과 또한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심의 정도와 연구 성과의 수량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점은 민속학 분야의 연구가 대체로 민족 혹은 그와 유사한 규모의 공동체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문화와 문화의 연관관계 설정에 있어 국민국가의 국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경계를 넘나들며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²³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가 국민국가의 영토 내에서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것만큼, 그 이외의 지역에 주목하는 경향은

아니었다. 영토의 경계는 기실 근대 국민국가 형성 이후 견고해진 측면이 강하고, 그 이전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비록 이동수단의 미 발전으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는 존재하지만)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민속학은 해양인문학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기존 연구의 경향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기존 연구 경향에서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문제점은 다수의 연구들이 해양 민속의 현상적 측면에만 주목하여 현장 답사를 통한 자료 조사 및 사례 제시의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기실 조사보고 형식의 논문 그 자체가 문제시될 수는 없다. 조사보고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지역의 민속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 대상화하는 중요한 연구 작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민속학이나 인류학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다양한 문화 양상들과 공시적·통시적·계보학적으로 분석하여 인문학적 가치를 담보해야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인가 의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해양 민속의 전파 경로나 영향 관계 위에서, 각각의 해양 민속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질들을 해명하는 가운

23 최근 해양 및 도서문화와 관련하여 산출되는 연구 경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학회지 『도서문화』의 기획주제 양상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아래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학회지 『도서문화』의 호별 기획주제를 정리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별 지역에 대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특정 단위를 묶은 기획주제들이 선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양 및 도서문화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자료 조사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해양을 중심으로 한 문화 권역 형성에 중요한 토대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호수	지역	호수	지역
1호	암태도	16호	체도
2호	조도	17호	금당도
3호	장산도, 하의도	18호	압해도
4호	안좌도	19호	비금도
5호	지도	20호	동아시아 전반
6호	흑산도	21호	자은도
7호	신안 도서지역 전반	22호	생일도
8호	보길도	23호	아시아 전반
9호	청산도	24호	임자도
10호	평일도	25호	동북아시아 전반
11호	소안도	26호	중국 舟山群島
12호	조약도	27호	(장보고)
13호	고금도	28호	증도
14호	신지도	29호	중국 舟山群島
15호	노화도		

데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앞서 제기한 현상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연구 경향과 일정 정도 연동되어, 기존 연구 경향이 특정 지역의 제한된 특징에만 주목하는 문제점 또한 지적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특정한 지역에 어떠한 문화적 현상들이 탐색하는 작업은, 일정한 권역 내의 국지적 독자성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요긴한 작업이다. 하지만 이때 이러한 양상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준거틀 혹은 비교군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폭넓은 전제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문화적 사실들을 수집하고 보고하는 연구가 지배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러다보니 대개 이와 같은 연구들은 ‘A라는 지역에 존재하는 B라는 문화’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차원의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추후에 연구가 축적되면 이와 같은 개별적 사실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식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차원에서 비교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특정한 두 지역, 이를테면 국내의 두 지역, 나아가 국내의 한 지역과 국외의 한 지역을 비교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등의 연구 경향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양 문화가 지니고 있는 국지적인 모습은 ‘해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분명 여러 다양한 관계와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해양인문학이 갖고 있는 해양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 문화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본 논문이 문제제기를 하는 바는 - 이는 민속학 연구 전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 현전하는 모습을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민속학 연구가 현장 답사나 현전하는 문헌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보니, 지금의 모습을 마치 과거의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설명하려는 경향이 은연중에 나타난다. 그러나 주지하듯 인류의 문화는 끊임없는 누적의 과정을 거치며 갱신되거나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지 않고, 과거의 문화를 해석할 경우 자칫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민속학 연구가 비록 현전하는 기록들만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실증적 연구 이상의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은 결국 단순히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통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민속학 영역에서 관심을 갖는 기록이나 현장의 모습들만이 아니라, 해양 및 바다를 통해 수혜 받은 다양한 단서들이 중요한 자료로 대두됨으로써, 연구 대상의 외연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해양민속학의 논의와 그 수준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해양민속학은 현재와 미래와의 접점의 지점들을 적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이들 학문은 단지 과거로부터 전해진 고형(固形)의 유산들만을 텍스트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는 ‘현재’의 ‘민속’ 안에서 연구자들은 과거를 탐색하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해양인문학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해양문화가 끊임없는 교차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4. 해양인문학의 과제와 의의

이상에서 거칠게나마 해양인문학의 하위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해양문학, 해양사학, 해양민속학의 기존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 각각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결국 해양인문학의 자장 안에 속한 학문 영역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요소로 수렴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4.1. 영토적 국경 개념을 극복하는 문화 권역의 창출

본 논문이 살펴본 해양문학, 해양사학, 해양민속학 모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연구 범위에 해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체로 영토적 국경 내의 문화적 동질성을 설명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부연하기 위해 사용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실 근대적 분과학문이 국민국가의 형성 및 유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 연구의 대부분이 인간 보편의 가치를 모색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 혹은 영토적 개념의 국경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문제와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필터에 의해 한 지역의 정체성은 다른 지역의 정체성과 국경을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독특한 성질로 설명된다.

그러나 최근 국민국가의 내적 단일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문화를 평면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때 해양인문학은 기존 영토적 국경 개념에 의해 구획되던 권역을 극복하고 해양을 중심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 권역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지도는 대개 자연적·지리적 기준에 근거해 그려진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보기에 정밀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대의 인식과 사유를 보여주는 점에서 조선시대 지도들의 의미를 폄하할 수 없는 것처럼, 단순히 자연적·지리적 기준에 의거한 권역에 긴박될 필요는 없다.

해양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문화적 동질성과 차이들을 규명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존 영토 중심의 문화 권역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적 가치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 영토적 권역 개념과 결코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 둘이 상호 작용하여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다층적·중층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인문학은 최근 영토적 국경의 개념들이 그 권위를 점차 상실해나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학문적 방법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 해양을 중심으로 근접한 국가의 문화 교류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 해양이 지니고 있는 폭력성, 침략성, 제국성을 지양하고, 해양을 통해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4.2. 분과학문 간의 생산적 접합을 통한 문화론적 연구의 확대

결국 위와 같이 해양을 중심으로 근접한 지역의 문화와 문화를 비교하는 일은 비단 특정 분과학문 간의 - 가령 「홍길동전」 전승과 관련한 일본 오키나와 지역 홍길동 이야기와 조선의 「홍길동전」 비교와 같이 - 일대일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문학 작품이 바다를 건너 육지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전해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서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분과학문 간의 생산적 접합을 통한 문화론적 연구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양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경우, 단순히 인문학 분과학문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해양학 분과학문과의 동조도 절실히 요구된다.

요컨대 해양을 기반으로 할 경우, 인간이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바다 위를 통해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으로부터, 해양을 통한 소통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단서들이 필요함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이는 분과학문 간의 연계 연구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근대적 분과학문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분과학문 간의 생산적 접합을 통한 문화론적 연구의 확대는 비단 해양인문학의 지향점만이 아니며, 학문의 전반적인 지향점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4.3. 문화적 소수자인 해양문화 향유자들에 대한 재인식

흔히 문화는 인류가 학습을 통해 인류의 유산을 사회적으로 전승(통시적)하고 전파(공시적)하는 양상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처음부터 문화가 이렇듯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지는 않았다. 초창기 문화라는 개념은 미개라는 개념의 상대어로 사용되었다. 즉 인류의 삶의 양상을 미개와 문화라는 개념으로 차등을 두어 이해한 것이다.

현재 후자와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은연중에 문화는 근대적 의미의 교양과 지식, 세련됨 등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때 문화에는 사회적 중심지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세련된 활동만을 의미한다는 전제가 숨어있게 된다.

다소 과격한 접합일 수 있으나, 여태껏 해양문화 향유자들에 대한 인식 또한 이러한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의 적용을 받아 소외된 감이 없지 않다. 해양문화는 변방의 문화, 수준이 높지 않은 문화로서, 문화를 형성할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이해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근대적 가치를 우위의 것으로 설정하고, 이와 같은 근대적 가치가 잘 발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육지 내의 사회적 중심지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의 사회적 삶을 평가함에 있어 (기존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중심지의 문화와 삶이 꼭 수준 높은 문화라는 결론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해양인문학은 바로 이렇듯 지금까지 문화적 소수자로 인식되던 해양문화 향유자들의 문화를 의미 있는 단계로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학문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인문학이 사회를 중심과 주변, 상질(上質)과 저질, 우(優)와 열(劣)의 위계적 이분법으로 구분했다면, 해양인문학은 해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변적 질서들을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소수자로 인식되던 해양문화의 의의를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해양과 관련한 인문학적 연구에 대해서 ‘해양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양인문학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해양인문학의 하위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해양문화·해

양사학·해양민속학 등의 기왕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후, 해양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대안적 학문연구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과 의의에 대하여 논했다.

해양학과 인문학은 원론적 차원에서 볼 때 쉽게 접합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인문학의 상대적 영역인 자연과학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으며, 반대로 인문학 연구는 주로 인간의 정적(靜的)·보편적 가치를 규명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동적(動的)·상대적 지향이 강한 해양문화의 성격은 인문학적 시야로 조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 연구 경향에서도 해양과 관련한 인문학적 연구는 인문학을 중심에 놓고 해양을 소재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학 분야의 경우 해양문학을 협의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연을 확장시켜 수용의 범위를 넓게 할 것인가와 같이, 해양문학의 개념과 범주 설정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입장차가 존재하는데, 이 또한 인문학에서 해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사학 분야의 경우에는 영웅적 해상활동을 펼친 인물들에 대한 연구 경향을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때에도 영웅적 해상활동은 해당 인물들의 국가 혹은 사회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강했다.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을 서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해양은 궁극적으로 육지 중심적 시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협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민속학 분야는 해양인문학의 가치를 실현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지향들이 연구소 및 학회지를 통해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다만 연구 대상을 현상적·국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라든가, 현전하는 모습을 과거로 소급하는 경향이, 통시적·공시적 소통과 교류를 전제로 하는 해양인문학의 지향과 다소 거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기존 인문학 영역에서 진행되던 해양과 관련한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수용한다면, 해양인문학은 영토적 국경 개념을 극복하는 새로운 문화 권역을 창출하여 지역 간, 국가 간 갈등과 위계를 극복하는 학문적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학제적 연구를 통해 문화론적 연구를 확대시키고, 문화적 소수자인 해양문화 향유자들의 문화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해양인문학은 단순히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해양 관련 연구 테마에 대한 관심의 환기 차원이 아니라, 육지 중심의 근대적 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완하는 대안적 방법론으로까지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Park, Yi-moon (2004). *The Key to Thought*. Seoul: Sanchereum.
- Cho, Kyu-ik, Choi Young-ho (1994). *Finding Ocean Literature*. Seoul: Jipmundang.
- Yoon, Hong-joo, Kim Sung-min (2021). *An understanding of marine humanities*. Seoul: WisdomPL.
- Kim Tae-man (2022). *Marine Humanities: Rethinking Marine Civilization and Oceanity*. Seoul: Rye Field.
- Yoon, il (2017). A study on marine in Japanese literature.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51, 467-477.
- Shin, Jeong-ho (2012). A comparative study on Ocean Literature in Korean & Chinese. *Journal of the Island Culture*, 40, 289-320.
- Choi, Young-ho (2005). Research Status of Korean Maritime Literature Study.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28, 271-297.
- Nam, Song-Woo (2016). The present condition of Korean -Chinese ocean literature and its search of future direc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47, 5-24.
- Choi, Young-ho (2006). Korean's Spirit of Maritime Challenge and Literary Interest. *Comparative Korean Studies*, 14(1), 227-259.
- Choi, Young-ho (2011). Consilient Thinking and Humanistic Imagination : Towards a Broader Horizon of Maritime Literature. *Lingua Humanitatis*, 13(2), 73-96.
- Choi, Young-ho (2009). The Significance in Rediscovering 'The Sea' in Korean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43, 21-48.

K-해양 인문학의 성립 가능성과 과제

엄태웅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이 글은 ‘해양을 주제로 하거나 소재로 한 인문학적 연구’에 대하여 ‘해양인문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해양인문학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해양문화-해양사학-해양민속학 등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며, 해양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대안적 학문연구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과 의의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방법 해양인문학의 가능성과 의의는 해양인문학과 연관성이 높은 문학, 사학, 민속학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 목표를 확인하고자 한다. 해양 관련 인문학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해양을 바라보는 인문학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 이 글은 해양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대안적 학문연구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과 의의에 대하여 논했다. 해양학과 인문학은 원론적 차원에서 볼 때 쉽게 접합될 수 없는 개념이다. 해양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인문학의 상대적 영역인 자연과학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다. 반면에 인문학 연구는 인간의 정적(靜的), 보편적 가치를 규명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동적(動的), 상대적 지향이 강한 해양문화의 성격은 인문학적인 시야로 조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존 인문학 영역에서 진행되던 해양과 관련한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해양인문학은 영토적 국경 개념을 극복하는 새로운 문화 권역을 창출하여 지역 간, 국가 간 갈등과 위계를 극복하는 학문적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학제적 연구를 통해 문화론적 연구를 확대시키고, 문화적 소수자인 해양문화 향유자들의 문화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양인문학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해양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대륙 중심의 근대적 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완하는 대안적 방법론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핵심어 해양인문학, 인문학 발전, 대안적 학문연구방법론, 잠재적 가능성, 창조적 공간

이 논문은 2023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0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